

국제금융위기 이후 최저임금 일자리 변화*

성재민**

I. 머리말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최저임금법 제1조).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최저임금제도의 영향 범위에 있는 근로자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명확히 구분되지만, 데이터상에서는 이 두 집단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가 많은 일자리에선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도 많은 것으로 데이터상에서 나타나므로, 여기서는 이들을 구분하기보다는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로 통칭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II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나타나는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의 추이와 2014년 자료에서 확인되는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정리할 것이다. 이 자료를 이용해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를 추정해 보면 2007년 이래 비중의 큰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의 구성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관찰된다. 제III장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 변동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제IV장에서는 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 이 글은 성재민(2014), 『최저임금 일자리 변화: 2007, 2014년의 비교』, 『노동리뷰』 7월호를 바탕으로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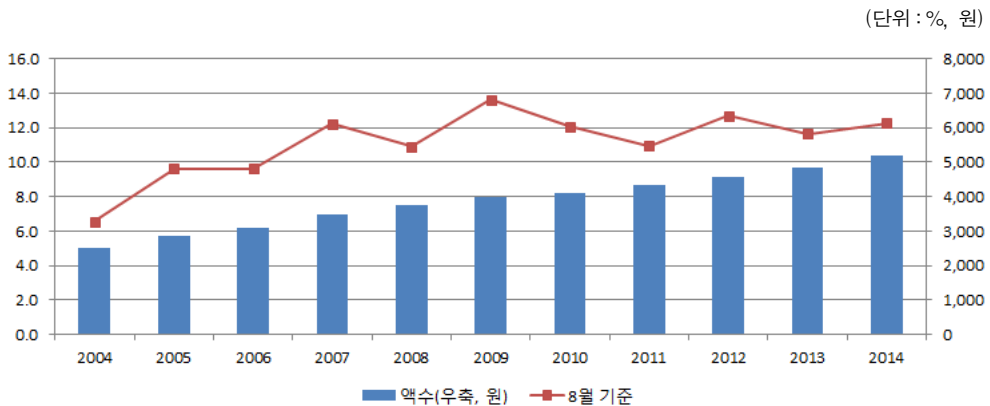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jmseong@kli.re.kr).

II.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의 특성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를 추정하기 위해 월평균 임금 자료가 있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였다. 월 임금이므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해 각 월마다 약 4.3주 정도 일한다는 가정하에 4.3×주당 근로시간)으로 월 임금액을 나누었다. 월 임금 응답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50원을 더해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간주한 후, 이들을 포함해 이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사람들 모두를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하여도 최저임금액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응답된 월평균 임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하의 수치가 정확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간주하기보다는 일종의 근사치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그림 1]을 보면 2004년 이래 꾸준히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수÷전체 임금근로자 수×100)은 최저임금액이 크게 증가할 경우 함께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최저임금액이 빠르게 오르면 그만큼 최저임금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 규모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나타나는 빠른 비중 증가가 그러한 측면을 반영한다. 2004년은

[그림 1] 최저임금액 추이와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



주: 최저임금 ±50원 구간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계산하였고, 월평균 임금을 주 근로시간으로 나누므로 측정오차 발생가능성이 높아 이와 같이 하였음. 2004년, 2005년은 8월 기준 최저임금액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원자료.

1) 실제 계산에서는 4.3 대신 365를 12(개월수)로 나눈 후 다시 7(1주는 7일이므로)로 나눈 값에 주당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표 1〉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5~24세	23.1	22.7	29.3	25.1	24.2	30.3	27.7	28.5
25~29세	5.3	4.0	6.3	5.8	4.6	5.7	5.8	5.6
30~39세	6.2	5.0	6.1	4.5	3.9	4.5	4.3	4.0
40~49세	9.5	8.1	10.2	8.8	6.9	8.1	7.1	6.8
50~59세	15.9	14.3	16.4	14.6	13.0	14.1	11.9	12.3
60세 이상	44.7	43.0	46.5	45.1	43.0	45.1	40.6	43.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원자료.

전년대비 최저임금이 10.3%, 2005년은 13.1%, 2006년은 9.2%, 2007년은 12.3% 증가하여 2008년 이후에 비해 큰 상승률을 보였다. 2009년에는 전년대비 6.1% 증가했지만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은 14%에 근접한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국제금융위기로 전반적인 임금 인상폭이 둔화된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이후로는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이 약 12%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과 2014년 8월 자료를 비교해 보면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연령별로 보면 15~24세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이 2007년 23.1%에서 2014년 28.5%로 증가했으며, 25~29세와 60세 이상은 등락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연령대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로 보면 12% 수준을 유지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연령별로 보면 최저임금 근로자가 노동시장 진입연령대와 퇴장연령대에서는 증가 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핵심연령대에서는 감소하는 구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성별로 2014년 8월 현재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분포를 보면 여성 근로자 중 18.5%가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이며, 남성 근로자 중 7.5%가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보아도 15~24세나 25~29세는 남성이 약간 높거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3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여성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이 남성에 비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진입연령대와 퇴장연령대에서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 비중이 높은 것은 남녀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여성은 25~29세에서 최저임금 이하 비중이 가장 낮고 그 이후로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차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데다, 임금수준이 낮은 편에 속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의 서비스 및 판매 직종 등에 많이 고용되어 있는 것이 남성과 달리 30대나 40대 같은 핵심연령대에서도 최저임금 이하 비중이 높은 이유라 할 것이다.

〈표 2〉 최저임금 초과/이하 근로자 수 및 비중(2014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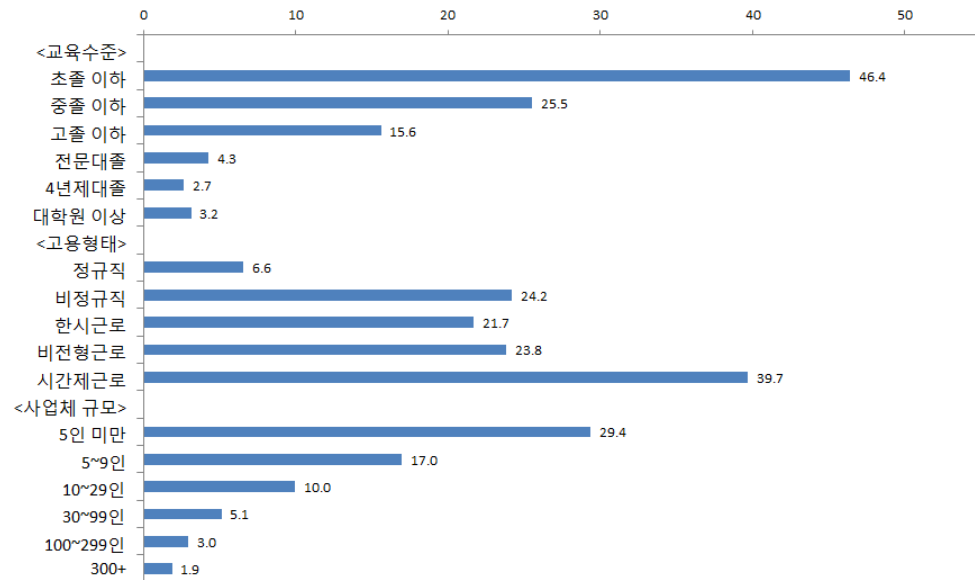
(단위:천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최저 임금 초과	최저 임금 이하	비중	최저 임금 초과	최저 임금 이하	비중	최저 임금 초과	최저 임금 이하	비중
15~24세	1,156	460	(28.5)	478	195	(29.0)	678	265	(28.1)
25~29세	1,940	116	(5.6)	1,019	60	(5.6)	922	55	(5.7)
30~39세	4,608	193	(4.0)	2,909	65	(2.2)	1,699	128	(7.0)
40~49세	4,539	329	(6.8)	2,793	66	(2.3)	1,746	262	(13.1)
50~59세	3,254	456	(12.3)	2,026	110	(5.1)	1,229	347	(22.0)
60세 이상	973	752	(43.6)	610	305	(33.4)	364	447	(55.1)
전 체	16,471	2,306	(12.3)	9,833	802	(7.5)	6,637	1,504	(18.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그림 3〉 특성별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2014년 8월)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교육수준별로는 초졸 이하의 경우 약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 이하 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도 낮아졌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 비중이 6.6%, 비정규직의 경우 24.2%로,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 비중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안에서는 특히 시간제 근로의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39.7%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약 1/3 정도가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 수가 많아질수록 최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Ⅲ.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의 일자리 변화: 2007년 8월과 2014년 8월의 비교

일자리별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변동을 보기에 앞서 직업별 평균 시간당 임금을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가장 낮은 약 6,700원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 종사자가 이보다 좀 더 높은 약 8,389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순으로 보면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사무 종사자의 순이다.

서비스 종사자는 경찰관, 소방관 등 보안 관련 종사자, 미용사, 항공기 등 승무원, 통역 안내원, 룸서비스 같은 숙박시설 서비스원, 테마파크나 노래방 등의 종사원, 캐디, 딜러, 치어리더, 음식요리사와 바텐더, 웨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이나 승무원 같이 저임금이 아닌 일자리도 있지만, 소규모 식당의 조리사나 주문받고 서빙하는 것 같은 저임

〈표 3〉 직업별 평균임금(시간당)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액 비율(2014년 8월 기준)

(단위: 원, %)

	평균임금(시간당)	(표준편차)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액 비율
관리자	26,333	(14,140)	19.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408	(9,971)	31.8
사무 종사자	14,806	(7,743)	35.2
서비스 종사자	8,389	(5,475)	62.1
판매 종사자	9,970	(6,939)	52.3
기능원/관련기능 종사자	11,882	(5,653)	43.8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12,457	(6,485)	41.8
단순노무 종사자	6,700	(3,511)	77.8

주: 시간당 임금액이 보고된 경우 보고된 시간당 임금액을 이용해 계산하였고, 시간당 임금액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액과 정해진 주당 근로시간 변수를 이용해 계산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표 4〉 직업별 임금근로자 수 및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수 및 비중과 증감

(단위: 천 명, %, %p)

		임금근로자 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수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		
		2007. 8	2014. 8	증감	2007. 8	2014. 8	증감	2007. 8	2014. 8	비중 증감
전 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309	4,185	876	84	131	47	2.5	3.1	0.6
	사무 종사자	3,184	4,043	859	106	109	3	3.3	2.7	-0.6
	서비스 종사자	1,429	1,786	357	381	467	85	26.7	26.1	-0.6
	판매 종사자	1,427	1,644	217	220	295	76	15.4	18.0	2.6
	기능원/관련기능 종사자	1,636	1,605	-32	123	76	-47	7.5	4.7	-2.8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1,813	2,181	368	107	109	2	5.9	5.0	-0.9
	단순노무 종사자	2,658	2,949	292	892	1,112	219	33.6	37.7	4.1
	전 체	15,882	18,777	2,894	1,942	2,306	364	12.2	12.3	0.1
남 성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11	2,190	279	33	44	11	1.7	2.0	0.3
	사무 종사자	1,673	2,121	448	27	30	3	1.6	1.4	-0.2
	서비스 종사자	436	629	192	79	101	22	18.1	16.1	-2.0
	판매 종사자	561	708	147	45	79	33	8.1	11.1	3.0
	기능원/관련기능 종사자	1,414	1,429	15	59	40	-19	4.2	2.8	-1.4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1,539	1,806	267	72	70	-2	4.7	3.9	-0.8
	단순노무 종사자	1,326	1,407	81	376	435	59	28.4	30.9	2.5
	전 체	9,235	10,635	1,400	697	802	104	7.6	7.5	0.0
여 성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98	1,995	597	51	87	35	3.7	4.3	0.7
	사무 종사자	1,511	1,922	411	79	79	0	5.2	4.1	-1.1
	서비스 종사자	993	1,157	165	302	366	63	30.5	31.6	1.1
	판매 종사자	865	936	70	174	217	42	20.1	23.1	3.0
	기능원/관련기능 종사자	223	176	-47	64	36	-28	28.5	20.2	-8.3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274	374	101	35	39	4	12.8	10.4	-2.4
	단순노무 종사자	1,332	1,543	211	516	677	161	38.8	43.9	5.1
	전 체	6,647	8,142	1,495	1,245	1,504	260	18.7	18.5	0.0

주: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가 매우 적은 관리자, 농림어업 숙련근로자가 합계에는 포함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금 특성을 지닌 일자리가 많이 있어 단순노무직 다음으로 평균임금이 낮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각 직업군의 보조적인 업무를 하는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말단의 보조업무 성격이 강하다 보니 숙련수준도 가장 낮고, 임금수준도 제일 낮은 것이다.

직업별로 임금근로자 증감을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007년 8월과 2014년 8월을 비교할 때 876천 명 증가해 가장 고용성장이 컸던 직업군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사무 종사자로 859천 명 증가하였다.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의 숙련공 직업이 포진해 있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는 32천 명 감소하였다. 서비스 종사자는 357천 명 증가하였으며, 단순노무 종사자(292천 명↑), 판매 종사자(217천 명↑)는 20만 명대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동 시기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수 증감을 보면 전체적인 임금근로자 고용의 성장세가 컸던 전문가, 사무 종사자 직업군에서는 합쳐서 50천 명 증가했을 뿐이며, 단순노무 종사자에서는 219천 명이나 증가했고, 서비스 종사자에서 그 다음인 85천 명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금근로자 직업군의 성장·쇠퇴와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증감은 큰 관련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별로 나누어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다.

〈표 5〉 산업별 임금근로자 수 및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수 및 비중과 증감

(단위: 천 명, %, %p)

	임금근로자 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2007. 8	2014. 8	증감	2007. 8	2014. 8	증감	2007. 8	2014. 8	증감
농림어업	146	127	-20	73	55	-18	49.8	43.1	-6.7
제조업	3,360	3,831	471	266	204	-61	7.9	5.3	-2.6
건설업	1,393	1,360	-33	111	85	-26	8.0	6.3	-1.7
도매 및 소매업	1,940	2,274	335	316	385	69	16.3	16.9	0.6
운수업	677	763	87	64	77	14	9.4	10.1	0.7
숙박 및 음식점업	1,175	1,304	129	363	453	89	30.9	34.7	3.8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613	634	21	18	8	-10	2.9	1.2	-1.7
금융 및 보험업	744	805	60	20	12	-8	2.7	1.5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298	349	52	75	73	-1	25.1	21.0	-4.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596	883	288	18	22	4	2.9	2.4	-0.5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	936	1,100	164	239	232	-7	25.5	21.1	-4.5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800	974	174	48	128	80	5.9	13.1	7.2
교육서비스업	1,366	1,428	62	54	77	23	4.0	5.4	1.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678	1,638	960	43	218	175	6.3	13.3	7.0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222	246	23	60	54	-6	26.8	21.8	-5.0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611	776	165	110	169	58	18.1	21.7	3.7
가내 고용활동 등	160	91	-69	60	51	-10	37.7	55.8	18.1
전 체	15,882	18,776	2,894	1,942	2,306	364	12.2	12.3	0.1

주: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가 매우 적어 표에는 제외된 광업과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그리고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전체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산업별로 보면 두 시기에 가장 많이 임금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60천 명 ↑), 제조업(471천 명), 도매 및 소매업(335천 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88천 명 ↑)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5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89천 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0천 명 ↑)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가 증가한 단순노무 종사자를 업종과 연령 구간별로 나누어 증감을 살펴보았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임금근로자 전체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전통적으로 단순노무 종사자 규모가 컸던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규모가 감소하였다.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핵심연령층에서 단순노무 종사자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단순노무 종사자가 고령화하고 있으며, 고연령층 유입이 지속되면서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종사자도 같은 방식으로 증감을 보면 연령대별로 증감이 엇갈리는 것이 중요한 특징으로 보인다. 임금근로자 전체로 보면 15~24세와 55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핵심연령층에서는 겨우 46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24세는 주로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했으며(전체 100천 명 증가 중 73천 명이 이 산업에

〈표 6〉 단순노무 종사자의 업종별·연령구간별 2007년 8월과 2014년 8월 간 증감

(단위: 천 명)

	임금근로자 증감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증감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전체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전체
제조업	17	-52	17	-18	6	-30	-9	-34
건설업	-1	-77	4	-74	0	-8	-5	-13
도매 및 소매업	-8	56	39	87	-6	15	29	38
숙박 및 음식점업	14	-17	66	64	16	-5	23	35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	-4	-52	95	39	-1	-21	10	-1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6	-14	68	60	5	-1	65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0	-7	101	95	2	4	82	89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5	-3	2	-7	-2	0	-2	-4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0	10	60	70	1	5	35	41
가구 내 고용활동 등	0	-58	-13	-70	0	-11	-1	-12
기타 산업	4	23	18	45	5	10	8	23
전 체	24	-190	458	291	27	-42	235	22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표 7〉 서비스 종사자의 업종별·연령구간별 2007년 8월과 2014년 8월 간 증감

(단위: 천 명)

	임금근로자 증감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증감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전체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전체
숙박 및 음식점업	73	-107	32	-2	52	-37	8	23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	-2	10	18	26	0	-3	6	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0	-2	12	10	0	-4	0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2	90	110	203	-1	20	36	55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2	2	0	5	-7	3	0	-5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21	12	14	47	15	-7	3	10
기타 산업	4	41	23	68	-1	-2	6	3
전 체	100	46	210	357	57	-30	59	8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서 증가), 25~54세는 이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감소했다(107천 명 ↓). 고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서비스 종사자가 증가한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0천 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도 15~24세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55세 이상 고연령층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크게 증가했다.

25~54세는 주로 어느 직업군에서 증가했는지 보기 위해 <표 8>에서 직업과 연령구간을 교차해 증감을 분석해 보았다. 25~54세는 전문가와 사무 종사자 직업군에서 집중적으로 증가(1,470천 명 ↑)했으며, 단순노무 종사자에서는 190천 명 감소했고, 서비스 종사자에서도 겨우 46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5~24세는 서비스 종사자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했고, 55세 이상 고연령층은 단순노무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와 같이 연령별로 엇갈린 직업군 변동의 차이가 25~54세에서는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감소로, 그 외의 연령층에서는 증가로 귀결된 셈이다.

최저임금보다 범위를 넓혀 OECD에서 많이 활용되는 상대 저임금근로자(전체 임금근로자 중위임금의 2/3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확대해 보아도 15~24세는 저임금근로자가 125천 명 증가했는데, 서비스 종사자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은 502천 명 증가했는데,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에서 저임금근로자가 크게 증가(395천 명 ↑)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25~54세는 저임금근로자가 469천 명 감소했는데, 이 두 직업군에서 저임금근로자가 275천 명 감소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연령구간별·직업별 임금근로자 2007년 8월과 2014년 8월 간 증감

(단위: 천 명)

	임금근로자 증감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증감			저임금근로자 증감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0	706	150	8	20	19	7	56	35
사무 종사자	-48	764	143	-5	-2	10	-35	-9	20
서비스 종사자	100	46	211	57	-31	59	107	-84	122
판매 종사자	34	85	98	41	15	20	40	-8	33
기능원/관련기능 종사자	-9	-170	147	-3	-48	4	-17	-127	-2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57	101	210	3	-31	30	2	-97	42
단순노무 종사자	24	-190	458	27	-42	235	22	-191	273
전 체	182	1,279	1,434	129	-126	361	125	-469	502

주: 전체에는 관리자와 농림어업 숙련근로자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표 9〉 임금근로자 중 전문가와 사무직 종사자의 연령별 2007년 8월과 2014년 8월 간 증감

(단위: 천 명)

	전문가			사무직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제조업	0	-1	-1	-12	190	30
건설업	0	14	9	-11	17	20
도매 및 소매업	3	4	1	-4	-2	0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3	51	8	-15	-9	-1
금융 및 보험업	-3	-17	-1	-10	53	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	144	8	-12	138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1	17	2	15	43	1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1	-11	11	-8	27	20
교육서비스업	-43	-7	30	6	49	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8	475	27	10	62	7
기타	5	38	55	-8	195	43
전 체	20	707	150	-48	764	14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사무직 종사자는 연령별, 산업별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살펴 보았다. 전문가는 25~54세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75천 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44천 명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1천 명 ↑)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사무직은 25~54세에서 제조업(190천 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38천 명 ↑) 등에서 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들 증가한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자리를 선택해 일하고 있는 것일까?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15~24세의 경우 ‘근로조건에 만족해서’,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49.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령대 특성을 반영해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함’이라는 응답도 13.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5~54세는 ‘근로조건 만족’, ‘안정적 일자리여서’라는 응답이 68.4%에 달했다. 55세 이상도 이 두 응답을 합치면 50.2%에 달했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라는 응답도 38.7%로 높게 나와 은퇴연기의 심정을 보여줬다.

반면에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에 일하는 15~24세는 이 연령대의 특성상 ‘학업 등을 병행하기 위해’(37.2%) 이 일자리를 선택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20.0%, ‘근로조건에 만족하여’ 12.1%,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표 10〉 일자리 선택 사유

(단위 : %)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최저임금 초과 근로자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전체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전체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하여	12.1	13.2	17.4	14.8	30.6	35.6	28.2	34.2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1.7	5.1	4.8	4.3	18.8	32.8	22.0	30.3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20.0	48.4	60.5	47.8	11.4	17.4	38.7	20.0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10.7	8.6	4.7	7.4	7.7	3.8	3.7	4.0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	3.5	2.1	0.2	1.6	2.5	1.1	0.8	1.1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9.3	4.6	0.2	3.7	13.0	3.9	0.3	4.0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0.1	8.8	4.7	5.3	0.1	1.9	1.8	1.7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37.2	3.0	0.1	8.6	12.6	0.5	0.1	1.3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1.7	2.5	2.4	2.3	1.2	2.2	2.5	2.1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3.3	3.1	3.4	3.3	1.3	0.8	1.7	0.9
기타	0.2	0.5	1.8	1.0	0.7	0.2	0.4	0.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10.7% 순으로 나타났다. 25~54세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했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조건에 만족하여’ 13.2%, ‘육아, 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8.8% 순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 고령층은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했다는 응답이 무려 60.5%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일자리 대부분이 저숙련 일자리임에도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0.2%),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4.7%) 같은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적은 것은 이들 일자리에서 일하는 55세 이상 고연령층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의 수준이 본인의 인적자본이나 향후 일할 수 있는 노동가능연령 등을 고려할 때 높기 어려운 측면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자리 선택 사유가 최저임금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 일자리 선택사유는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IV. 맺음말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2007년 이후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은 큰 변화 없이 12% 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의 구성은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진산업국가들의 문헌들을 보면 기술변화나 국제화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양극화되고 있다고 한다(Acemoglu & Autor, 2011). 고숙련·고임금의 전문가 직업군은 증가하는 반면, 기계나 컴퓨터로 대체 가능한 중간 정도의 숙련을 필요로 하는 단순 사무직이나 제조업 조립원 같은 일자리는 감소하고, 청소나 서빙 같이 기계나 컴퓨터로 대체하기 힘들지만 반드시 누군가 해야 하는 (단순) 서비스직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일자리 양극화론의 골자이다.

성재민(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금융위기(2009년) 이전에는 고숙련·고임금 전문가 직업군이 크게 증가하고, 제조업 조립 관련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단순노무직 등 저숙련·저임금 일자리는 증가해 양극화론에 부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렇지만 국제금융위기 이후로는 고임금 일자리보다는 복지 전문가 등 전문가 집단 안에서는 고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그렇다고 최저임금도 아닌 수준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양극화론에 잘 부합되지 않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고 한다.

앞서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07년 8월과 2014년 8월 두 시점을 비교할 때 약 876천 명 가량 전문가 직업군에서 일자리가 증가했지만, 이 중 약 475천 명가량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에서 증가한 것이 이와 같은 점을 잘 보여준다. 여기에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같은 저숙련·저임금 서비스직 일자리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국제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행정업 등에서 단순노무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해 온 상황이다.

이와 같이 국제금융위기 이후 매우 낮은 임금 직업군도, 고임금 직업군도 아닌 일자리 성장이 노동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들 일자리에 핵심 노동계층(25~54세)이 흡수되고 있으며, 나머지 저숙련·저임금 일자리 수요를 노동시장 진입연령대와 지난 몇 년간 고용이 크게 증가한 퇴장연령대에서 채우고 있는 것이, 2007년 이후 최저임금 이하 임금근로자 비중이 12%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연령층에서는 이 비중이 줄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유지 또는 증가하는 이유라 정리할 수 있겠다. **KLI**

<참고문헌>

성재민(2014), 『임금불평등 추세와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Acemoglu, Daron and David Autor(2011), “Skill, Tasks and Technologies : Implications for Employments and Earning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ume 4b, Ch12.